☞ 17면에서 계속

을 막론해 놓고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내 모습 아님이 없느니라. 그러고 미생물의 부모라도 내 부모 아님이 없느니라. 나도 그런 부모를 거쳐왔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따로 찾지 마시고 내 안에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고, 알고 싶게 하고, 알게 해 주고, 진화시키고 발전시켜 주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이끌고 갈 참 주인의 소식을 어서 드러내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라도 열심히 관하는 도리를 배워나가기 바랍니다.

무명영가의 의미는?

문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는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촛불재가 있는데 그 하나 속에 동참을 하면 전체가 다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는 것은 수 억겁 동안 형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즉 나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이 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면서 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 속에 촛불을 밝히면 되지 따로 이름을 만들어 무명영가라고 해서 동참하게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기 껍데기가 사는 게 아니죠. 자기 내면의 주장자라고 할까, 주인공이라고 했죠. 주인공이 이끌어 주어야만이 되는 거죠. 사람이 간다고 하거나 온다고 하거나, 눈으로 보고 간다 온다 하는 것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떨어지면 죽은 사람이지 산 사람이 못되죠. 그러니깐 마음이 뭐 별나냐고 하지만 마음이 정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자식이 학교도 안 가고 영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일만 저지른다고 그러고, 또 캉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별의 별일이 다 많은데 그래도 내면의 도리를 알면 그걸 수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면의 살림살이를 잘 모르니까 영 모르고 밖으로 헤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무명영가 천도를 지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일어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사는 데에도 연구도 그렇고 마음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집집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사를 가면 영계성으로 인해서 화장실이나 방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을 꿈에 본다거나, 변동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꿈에 조상들로 화해서 자꾸 나타나서 "나 배고프고 춥다" 이런다면 그 마음을 옮겨야만 될 텐데 그 마음을 옮겨드리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쫓기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발버둥이만 치니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지혜롭게 대치해서 나갈 수 있는 안(案)을 세운다면 저절로 조상님들이나 무명 영가라 해도 다들 좋게 되고, 무명 영가도 인연에 따라서 만남이 있는 거죠. 어느 집에 이사를 가서 만났더라도 인연에 따라서 만난 거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두 불쌍하죠. 상대방의 이유를 알면은 모두가 다 불쌍한 겁니다. 모두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말입니다. 살아 있을 때 아쉬움을 가졌던 분들은 자기가 죽은 줄을 모르거든요. 죽은 줄을 모르니까 살아 있을 때 아쉬웠던 거를 그대로 아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달렸다 이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없애려면 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 산 사람 모두 불성이 있어서 작용을 하는 거니까 모두가 연결을 해서 그 길을 걷게끔 해 드리고 한 도량에 이르게 해 드린다면 대대손손 유전성이 없고 영계성도 없고 모든 업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죽은 대로, 죽으면 또 사는 대로 어떻게 나와야 잘 살 수 있는가를 스스로 알게끔 되는 문제입니다.



그림 · 최주현

모든 절차 계율 으레 지킬 줄 알아야

안에도 속지 말고 바깥에도 속지 마라

그래서 공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공생이라고 그러느냐? 모두 한꺼번에 수많은 세포들이 내 몸을 집을 삼아 살고 있고, 지구를 집을 삼아 살고, 어디서든 생명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생이지 뭡니까. 그러고 공체요 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공식이죠. 공식으로 하여금 만법을 들이고 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는 연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나는 참 그거를 일러드리질 못해서 모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올라오면서 함이 없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해도 자기가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주인공이 이끌어 가는 거지. 그래서 자기 주인공으로 하여금 모두 하게끔 자기 마음이 전부 주인공에다 다 일임해 놓되 알게 모르게 죽은 사람들도 그와 같이 벗어나도록 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공에 빠지는가?

문 하루하루 살아감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스님의 말씀에 감사 드립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왜 공에 빠지는가 하는 겁니다. 또 공에 빠지면 어찌해야 하며 공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여쭈고 싶습니다.

답 우리가 공이라 하면 용무(用無)를 말하죠. 용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움죽거리고 하는 그대로, 공이라는 그 자체가 그대로입니다. 항상 얘기해 드렸죠?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니 그냥 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예로 들어 말을 했죠? 아버지가 됐을 때 나라고 하겠느냐,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하겠느냐, 그거는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없으면서 그대로 용무가 되죠. 그냥 그대로죠. 그래서 여래라고 아마 이름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여래 속에서 여래의 행동을 하면서, 그대로 그냥 법이 용이면서 무다 이겁니다. 모두가 다 그냥 비었습니다. 그대로' 비었습니다' 이러면 빈 줄로만 알지 마시고 '꽉 찼다' 이러더라도 꽉 찬 줄로만 알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구에서 에너지가 부족하여 없어진다면 무엇으로서 살 것인가? 그런데 허공에 생명들이 꽉 찼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꽉 찬 데는 에너지도 꽉 찼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무를 그대로 알아서 진실하게 함이 없이 할 줄 안다면 에너지를 얼마든지 끌어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왜 못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죄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왜 못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해골을 놓고도 그 해골과 자기와 둘이 아닐 때 비로소 자기를 아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너 저 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애비 거고 하나는 자식 거니라. 그런데 양쪽에 구멍이 뚫렸느니라. 그런데 애비가 자식한테로 가면 자식으로 하나가 되고, 자식이 애비한테로 가면 애비로 하나가 되니 그건 무슨 연고인가?' 하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때가 스물 몇 살인데 말입니다. 알게 뭡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 발이 떼어져야죠. 그래서 3일을 그냥 그것 때문에 앉아 있었죠. 그러다가 아하! 이럭하구선 일어났죠. 생각을 해보세요. 영에다 영을 넣어도 둘이 아니요, 이쪽 영을 저쪽에다 넣어도 둘이 아니요, 만 불을 하나에다 넣어도 둘이 아니라고 이랬으니 어찌 공했다고 부처님께서 안 그러셨겠습니까? 이 묘한 법을 말입니다.

> 나를 이끌어 주고
> 알게 해주고
> 진화 · 발전시키고
> 영원히 나를 이끌고 갈
> 참주인 찾으세요

무심은 그냥 일을 하면서도 무심이지 마는 공에 빠진 상태는 바로 내면세계에 노예가 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렇게 공에 빠지면 목석이지 사람입니까, 어디? 그래서 길잡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도 속지 말고 바깥에도 속지 마라 하는 뜻은, 나를 그렇게 해서 발견했다 하면 둘이 아닌 도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많은 화두가 일어납니다. 타의에서도 나를 괜히 으르렁거리고 못 잡아먹어서 난리구요. 또 자의에서도 괜히 화가 나고 괜히 하나를 보기만 해도 신경질이 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하, 나를 공부시키느라고 이러는구나' 하고 다시 뭉쳐놔야 될 텐데, 바깥으로 '에이그, 저것이 그냥 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떠니 저떠니.'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길길이 뛰게 되죠. 분하고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맹목적으로 앉아서 생각하고 앉아 있는 사람은 무기공에 빠진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은 움죽거리고 살면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아주 생활까지도 버리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 그건 바로 무기공에 빠진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생활 하나하나 하는 게,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는 게 그대로 좌선이며, 모든 걸 맡기고 사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을 좌선이라 하고, 바로 뛰고 앉고 서고 자고 하는 게 전부 참선입니다. 그러니 둘로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무기공에 빠졌다고 느껴질 때 빠졌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되겠죠. 무조건 무기공에 빠졌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무기공에 빠지지 않는 법입니다. 무기공에 빠진 줄은 어떻게 아는가? 그 아는 놈이 누구냐? 그것만 알면 무기공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 큰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 스님 자신과 도반 · 선배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祈禱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생활 속의 금강경



영가의 바른 천도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영가천도를 위한 독경용으로 으뜸가는 금강경!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영가천도의 비결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뜻을 알고 독경을 하면 그 공덕은 더욱 커지는 법!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고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신국판 / 304면 / 값 6,000원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미타신앙 · 미타기도법

미타기도법은 영가님들께
영원 생명과 무량한 빛을 안겨줍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 · 오회염불 · 관상염불 · 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 천도를 하는 가족의 자세 등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참회 · 참회기도법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

이 책에는 업장과 참회,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절을 통한 참회, 참회염불,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등 참회의 참된 의미와 여러 가지 참회 기도법, 참회영험담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백중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3 · 팩스 : (02) 586-9078